

SK, 고급 윤활기유 생산 세계1위

제2공장 준공으로 1일 생산능력 1만7000배럴 ... 시장지배력 확충

SK가 제2윤활기유 공장 가동을 통해 현재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고급 윤활기유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SK(대표 신현철)는 9월9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최태원 회장, 신현철 사장, 박맹우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윤활기유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SK는 기존의 제1윤활기유 공장(1일 생산능력 1만배럴)에 이어 제2공장을 가동하게 됨에 따라 1일 1만7000배럴의 고급(Group-III) 윤활기유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으며 현재 세계 시장점유율 1위(60%)를 차지하고 있는 윤활기유 브랜드인 <유베이스>의 시장지배력도 확고히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활기유는 윤활유의 90%를 구성하는 주 원료로, 필요에 따라 청정분산제, 점도지수 향상제, 유동점 강하제, 산화안정제 등 각종 첨가제를 넣어 자동차나 기계장치의 마찰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2002년 8월에 착공해 2년여만에 완공된 윤활기유 공장은 SK가 자체 개발해 미국, 유럽 등 세계 22개국에서 특허를 받은 UCO 공정(SK UCO Technology)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한다.

준공식에 참석한 SK 최태원 회장은 투자비 및 공기를 대폭 단축한 제2윤활기유 공장 건설 프로젝트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급 윤활기유 세계 최대 판매회사의 명성과 자존심을 계속 지켜 나가자”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SK는 1995년 제1윤활기유 공장 준공을 통해 고급 윤활기유 시장에 뛰어 들었으며, <유베이스(YUBASE)>라는 독자 브랜드로 전세계 시장에 마케팅 중이다.

특히, 총 생산량의 60% 이상을 ExxonMobil, BP 등 메이저 석유기업을 포함한 세계 30여개국 80사로 수출하고 있다.

윤활기유는 전세계적으로 하루에 약 8십만배럴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저가제품인 Group- I/II 윤활기유이다.

그러나 최근 윤활유 완제품의 품질 고급화 및 고성능화에 따라 당초 10% 미만에 불과했던 고급 윤활기유 Group-III 시장이 연평균 15% 급팽창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10>



†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 왼쪽이 박맹우 울산광역시
장, 오른쪽이 김철욱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